

하늘반 이야기 (7월 3주 ~ 7월 4주)



산소리 숲속 학교는 푸르름이 더 해져서 숲이 우거졌지만 더위는 그대로였습니다. 오전에는 숲속에서 망치질하며 집도 만들도 꼬끼리 미끄럼틀이랑 그물 그네도 탔습니다.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물 미끄럼틀도 타고 시원한 분수 아래서 첨벙첨벙 수영도 하였답니다. 너무 신나게 놀아서 나오라고 하기가 미안했답니다.^^ 옷을 다 갈아입고 차에 가는데 하늘이 캄캄해지며 비가 내렸지만 그것마저 신나서 깔깔 웃으며 뛰어가는 아이들~~ 자연과 함께하며 한 뼘 더 자랐겠죠. (7월 22일 산소리 숲속학교)



형님들과 함께 하는 해리 책마을~ 형님들은 동생들이 나타나면 자리도 양보해 주고 다칠까 조심조심 챙겨주기 때문에 하늘반 아이들은 행복하답니다. 책 마을 선생님의 소개로 책 마을을 돌며 산책 한 후 커다란 책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책을 골라 읽었어요. 재미난 책을 찾아오는 친구가 있으면 서로 보겠다면...^^ 그래도 양보하며 같이 보는 모습이 대견했답니다. 책을 다 보고 난 후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2학년, 4학년 형님들과 떡 만들기 체험을 했어요. 호박떡을 만드는데 못하겠다고 하더니 방법을 터득했는지 할 수 있다며 조심조심 만들었답니다. 떡을 만들고 난 후 연계되는 동화 “뚱떡” 도 듣고 즐거웠답니다. (7월 19일 고창 책마을 해리)



날짜 세며 기다린 물놀이~~ 수영장에 도착하니 다른 팀이 없어서 넓은 수영장에 백암, 칠보, 수곡 친구들만 신나게 물놀이 할 수 있었답니다. 짧은 미끄럼틀, 기다란 미끄럼틀, 다양한 튜브도 타고, 수영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답니다. 점심 먹고 나서 좀 쉬었다 가야 된다고 하니 빨리 가자며 이야기하는 아이들~ 다시 한번 신나게 놀고 친구들과 유치원으로 돌아오는 차에게 쿨쿨 잠이 들었답니다. (7월 23일 물놀이-고창휴스파)